

## 『에고티즘 회상기 *Souvenirs d'Egotisme*』 연구

원 윤 수

(불어불문학과 교수)

“삶이란 모두, 분석을 무시하고 삶을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전기들을 늘 의심한다”고 말한 프랑스 현대 작가 자크 로랑 Jacques Laurent<sup>1)</sup>의 글을 『르 몽드』의 문예란은 소개하고 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스탕달 Stendhal의 자서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늘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그려내려고 노력하고 온 힘을 기울인 모습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로랑의 글은 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잡기 힘든 삶이란 것을 앞에 두고 있는 면에선 스탕달의 자서전을 떠올리는 것이 그리 크게 과장된 비유는 아닐 것이다.

그 다양하고 잡기 어려운 삶을 스탕달은 자서전이란 글쓰기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에게 있어 자서전이 특이한 것은 그 글쓰기가 자신을 아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모른다고 괴로워했고 자신이 선량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또는 재치가 있는가 바보인가를 늘 자문해보곤 했다.<sup>2)</sup>

스탕달에게 있어 자기 자신은 끊임없는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을 그리려는 글쓰기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어떤 가치의 모색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글쓰기는 앞으로 그가 만들어 갈 삶과도 크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스탕달의 자서전은 회고록과는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삶이 제시하는 복잡미묘한 양상은 스탕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 파악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즐기찬 진실에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기도하는 일은 더욱 쉽지가 않았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남다른 재능이 있는지 아닌지를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었다. 매

---

1) “Je doute toujours des biographies, parce que je suis persuadé que toutes les vies présentent des aspects qui défont l'analyse et obligent l'historien à tricher.” 1994년 9월 23일자 『르 몽드 *Le Monde*.』

2) “Je ne me connais point moi-même et c'est ce qui quelquefois, la nuit, quand j'y pense, me désole. Suis-je bon, méchant, spirituel, bête?” *Souvenirs d'Egotisme* (이하에서는 S.E로 약칭한다.) dans Stendhal, *Œuvres intimes II*, Edition établie par Victor Del Litto,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p.431

일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크게 자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은 자기 기분처럼 바뀌곤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판단은 얼핏 보는 개략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쓰고 있다.<sup>3)</sup>

그러나 그는 진실되고자 했다 그는 자서전이란 글쓰기를 하면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 *examen de conscience*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무엇인가 확실한것, 그리고 자신에게 오랫동안 진실로 남아 있을 것을 쓰고자 늘 노력을 했던 것이다 <sup>4)</sup> 따라서 그는 진지하게 분석하여 과장하고 그릇되게 쓰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자신을 통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에고티슴 회상기 *Souvenirs d'Egotisme*』를 쓰고자 기도한 것은 외국에서 여유있는 시간을 보람있는 일을 하며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서두에 적고 있다. 그것도 1821년에서 1830년의 파리생활에서 일어났던 일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가 자기 생애에서 즐거웠던 세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고티슴 회상기』는 1832년 6월 20일부터 두주일 동안에 집필을 하였던 것인데, 기억력이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아 중단을 한 글이다 그 책을 쓰기 한해 전 1831년 4월 17일에 그는 치비타 베키아의 총영사로 취임했는데, 그곳은 로마 법왕령에 속한 지중해 연안의 작은 항구로 스탕달이 가고자 원했던 곳은 아니었다 마차로 몇 시간이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이외엔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는 작은 어촌이었다 프랑스군이가 오스트리아군과의 대치 때문에 앙코나에 상륙하자 늘 로마에 머물 수도 없게 되어, 답답한 임지에서 자신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고싶은 욕망에 펜을 든 것이다.

그러나 스탕달은 행복한 순간을 묘사하다가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에고티슴 회상기』 첫머리에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Je craignais de déflorer les moments heureux que j'ai rencontrés, en les décrivant, en les anatomisant. Or, c'est ce que je ne ferai point, je sauterai le bonheur.*<sup>5)</sup>

내가 두려워 했던 것은 모처럼 맞이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말로 표현한다든가 세세하게 해부함으로써 그 신선함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행복한 시절은 쓰지 않고 넘어가리라.

여기서 우리는 평생동안 글을 쓰며 살았던 스탕달의 글에 대한 생각의 한 일면을 보는 한편, 생애에 행복했던 시절을 묘사하려는 그의 바램과 그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3) "(...) et alors mes jugements varient comme mon humeur. Mes jugements ne sont que des aperçus." S.E. p. 430

4) "Voyons si, en faisant mon examen de conscience la plume à la main, j'arriverai à quelque chose de positif et qui reste longtemps vrai pour moi." S.E. p. 430

5) S.E. p.430

볼 수 있다. 어쨌든 실제로 1821년과 6월부터 1822년 여름까지의 파리생활을 쓰고는 이 책을 쓰는 것을 중단하고 말았다. 그 이유에 대해 평자들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기억이 여의치 못해 그렇게 했으리라는 설명도 합당하겠지만 위에서 본 글쓰기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도 지나친 억측은 아니리라.

그가 처음 기도한대로 1830년까지의 파리생활을 썼다면 『아르망스 *Armançe*』, 『적과 흑 *le Rouge et le Noir*』 그리고 『라신느와 셰익스피어 *Racine et Shakespeare*』 등의 작품이 나왔을 때의 뒷이야기가 그의 독특한 필치로 소개되어 오늘날 독자들의 흥미를 돋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었을 터인데 그것은 꼭 아쉬운 일이 되고 있다.

1822년의 스탕달의 모습을 콜롱 R. Colomb은, “이마가 아름답고, 날카로운데다, 꿩을 어 보는 눈초리, 냉소적인 입에, 표정의 매력이 많고 속 눈썹이 짧은… 크고 앞으로 나온 배에, 짧은 두다리…”<sup>6)</sup>를 지닌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늘 여행을 즐겼던 그는 파리, 로마, 런던, 밀라노들을 오가며 바쁜 40대를 보냈던 것이다.

이제 50대에 들어선 스탕달이 십년 전의 행복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모습의 자기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치비타 베키야의 영사가 된 그는 너무 자유스럽게 말을 하기 때문에 불쌍한 로마인들은 말려들까봐 겁이 나서 귀를 막고 도망을 갈 정도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Je로 시종되는 이 회상기를 독자들이 책을 던지고 중단을 하지 않게 하는 길은 흠 잡을데 없는 완전한 성실함 *une parfaite sincérité*<sup>7)</sup>이라고 스탕달은 주장하고 있다.

그 성실함, 즉 완전한 성실함이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는 자세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에고티슴 회상기』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스탕달 자신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배경인물들에 불과한 것이었다. 비록 또 하나의 자서전 『앙리 브뤼라르의 생애 *Vie de Henry Brulard*』에서 보듯 자신이 미화된 묘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월감 같은 것이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다.

그가 『에고티슴 회상기』를 쓸 때는 앞에 언급했듯이 오십줄에 들어선 때였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공화주의자로서 일시적인 것이라 믿고 있던 7월 왕정에 마지못해 적응하고 있었던 때였다. 풍자적이고 농담꾼이었던 그는 특히 허영심을 떨시켰으며 이야기 상대자에게서 보이는 우쭐대는 것을 꺾어 버리려 했던 것이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

6) 《Le front beau, l'oeil vif et perçant, la bouche sardonique, beaucoup de physionomie, le cil court... le ventre développé et proéminent, les jambes courtes...》 Claude Roy, *Stendhal par lui-même*, p. 10에서 재인용

7) Je suis profondément convaincu que le seul antidote qui puisse faire oublier au lecteur les éternels Je que l'auteur va écrire, c'est une parfaite sincérité. S.E. pp. 430-431

의 눈초리를 삼가지 않았던 그가 자신에게는 어떠했던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을 재료로 삼은 이 글 속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려고 노력을 했다.

그의 감수성과 진실되고자 하는 성실성은 그가 자신에게 무작정 빠져버려 자기도취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를 했다. 그리하여 그는 나르시시즘 *narcissisme*에서 빠져나와 '내 moi'가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피하고자 했다. 따라서 자기분위, 이기주의, 자기위주의 뜻을 지닌 에고이즘 *égoïsme*을 피하고, 자기 분석에 몰두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을 말하려는 경향을 이르는 에고티즘 *égotisme*이란 표현을 택하게 된 것이다.

*égotisme*의 어원은 영어에서 온 것으로 옥스포드 *Oxford* 사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egotism n., practice of talking about oneself; over-use of *I* and *me*; self-conceit; selfishness.' 로베르 *Robert* 사전에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자신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됴됨이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넓은 뜻으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지나치게 진술하는 것을 몹시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자아숭배라고 풀이를 하면서 나르시시즘을 참조하라고 이르고 있다.

그러나 스탕달의 에고티즘은 로베르 사전에서 지적인 넓은 의미로서의 그 뜻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스탕달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되, 배타적인 자기위주의 자기도취와 자기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에고티즘 회상기』를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고이즘이나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고 그가 자기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 지적한 대로 타인에게 그러듯이 과거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정확하게, 감상적인 너그러움을 배제하고 때로 아이러니에 이르기도 하는 유머감각을 갖고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같은 현상은 그의 소설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작자 스탕달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들, 쥘리앙 소렐 *Julien Sorel*, 뤼시앙 뢰벤 *Lucien Leuwen*, 파브리스 델 돈고 *Fabrice del Dongo* 등. 그들은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인생여정을 다 겪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유머로 혹은 비꼬면서까지 그려주고 있는 면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있다. 그러나 과장없이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이 너무 지나칠 경우엔 스탕달의 매력은 감소될 것이다. 그것을 그래험 존스 *Graham C. JONES*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Cette honnêteté à tout prix, ce refus de se présenter meilleur qu'il n'est, est son antidote contre l'égoïsme obsessionnel qui pour lui caractérisait Chateaubriand. Mais il ne fallait pas aller trop loin dans la direction contraire. Poussé trop loin, le désir scrupuleux d'être exact peut aboutir à l'objectivité prétendument scientifique des naturalistes ou, pis encore, à l'ironie mordante et au détachement presque inhumain d'un Anatole France. Stendhal n'ignorait pas ce danger; aussi n'a-t-il pas caché son antipathie, (...) pour l'ironie voltairienne*

qu'il trouvait trop méchante.<sup>8)</sup>

이 절대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제 모습보다 더 좋게 소개하려는 것에 대한 거절은, 샤토브리앙의 특징을 이룬다고 그가 생각하던 고정관념화한 이기주의 *égoïsme*에 대한 스탕달의 해독제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서는 안되었다. 너무 멀리 밀려진, 정확하겠다는 세심면밀한 욕망은 자연주의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자칭 과학적 객관성에 혹은 더욱 나쁘게도 아나톨 프랑스 같은 사람의 신랄한 아이러니와 거의 비인간적인 무관심에 의해 끝내엔 이르게 된다. 스탕달은 그 위험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지나치게 냉혹하다고 생각한 볼테르식의 아이러니에 대한 혐오를 감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옳을까. 연대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전개시켜 지나온 날들의 일을 온통 적어야 되는 것일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골라잡아 서술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억이란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다. 『에고티슴 회상기』는, 스탕달 자신을 알고자 *se connaître*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전기를 쓴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진행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sup>9)</sup>라고 베아트리스 디디에 *Béatrice Didier*는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비록 그것이 행복했던 것이라 해도 연대에 맞추어 서술되지 않은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자신을 깊이 아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였다. 그런고로 단순한 기록이 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에고티슴 회상기』에서 질서 정연한 연대적 배열로 가꾸어진 글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에고티슴 회상기』는 앙리 마르티노 *Henri Martineau* 판본에 의하면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델 리토 *Del Litto*의 판본에 의하면 12장으로 되어 있다. 그에 대한 델 리토의 설명을 따르면 다시 새로 첨가해서 페이지를 매기고 한 장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우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제2장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제3, 4, 5장들은 사교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6장은 영국에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5장까지의 글을 보면 주로 자신과 관계를 가졌던 타인들에 대한 묘사가 많은데 특히 그것을 통해 그 시대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스탕달은 자신이 묵었던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주인 뽀띠씨 *M. Petit*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La politesse, la grâce, l'à-propos de ce M. Petit, son absence de tout sentiment, son horreur*

8) Graham D. Jones, *Le Moi qui se regarde; dans Les problèmes de l'autobiographie dans le roman stendhalien*, p. 15.

9) “Se connaître et la chose du monde la plus difficile, sinon impossible. Ecrire son autobiographie est un moyen de faire progresser cette connaissance(...)”, B. Didier, *Stendhal autobiographe*, p. 306.

pour tout mouvement de l'âme qui avait de la profondeur, son souvenir vif pour des jouissances de vanité qui avaient trente ans de date, son honneur parfait en matière d'argent, en faisaient à mes yeux le modèle parfait de l'ancien Français.<sup>10)</sup>

이 뻘뻘씨의 친절함, 우아함, 적절함,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깊이가 있는 마음의 모든 움직임이 아주 싫어하고, 삼십년 전에 맞본 허영심의 즐거움에 강한 미련을 지닌 것, 금전 문제에 관한 철저한 신의 등은 이 뻘뻘씨를 혁명전 옛 프랑스인의 나무랄데 없는 전형으로 내눈엔 보이게 했다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허영심 *vanité*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미만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허영심에 의해 밀리는 기계들과 같았다고 그는 개탄하고 있다. 그리고 혁명 이전의 프랑스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신랄하고 풍자적인 묘사는 당시 사회상에 대한 비판도 되는 한편 그의 사상 또한 엿볼 수 있게 하는 글이기도 하다.

파리를 향해 1821년에 밀라노를 떠나면서 그는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버리고 싶었다는 표현으로 적고 있다. 자신이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 자신을 또한 사랑했으나, 결코 몸을 허락하지 않았던 여자인 메틸드 *Métilde*에게서 떨어져 가야한다는 피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헤어지면서, 그 여자에게 스탕달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떠났다고 쓰고 있다.<sup>11)</sup>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메틸드라고 그가 부른 여인의 문제다 그 여자는 스탕달의 영원한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원래 이름은 마틸드 비스콘티네 *Matilde Viscontiné*(1790~1825)로서, 폴란드의 장군인 장 뎀보프스키 *Jan Dembowski*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여자로서 스탕달은 1818년 밀라노에서 소개를 받아, 곧 사랑에 빠졌다. 그리하여 1818년에서 1821년까지의 스탕달의 일기와 서한에는 그 사랑의 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가 주장하듯 서로가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었다고 평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그가 남긴 일기나 편지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레의 모략중상 때문에 그녀가 자신에게 몸을 허락치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박약했고, 그의 사랑은 짝사랑이었다. 그의 연애론이라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하여 *De l'amour*』는 그 여자에 대한 이루지 못한 자신의 주체가 대상이 된, 사랑에 대한 고찰인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었으며, 또한 그 여자는 영원한 연인이 된 것이다. 그 때문에 그의 상상력은 끝없이 그 여자를 미화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서슴없이 서로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단지 그 여자가 자기에게 몸을

10) S.E. p. 435

11) "Enfin je pris congé de Métilde. «Quand reviendrez-vous? me dit-elle. -Jamais, j'espère»" S.E. p. 432.

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더욱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와 같은 상심한 마음은, 끝까지 그 사랑에 충실하며,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그 여자에 대한 일념으로 일관할 것 같았는데, 『에고티슴 회상기』의 전개를 보면, 곧이어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에고티슴 회상기』에 나타난 그의 글쓰기 내용의 두가지 면을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그랬으리라고 믿었던 것을 사실처럼 표현하는 것과 너무나도 솔직하게 있었던 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앞뒤가 어긋나는 사실을 그 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는 한편, 통일성이 없으면서도 한대목의 이야기가 되어 독자의 흥미를 끄는 일화들이 눈에 뜨인다. 어떻게 보면 연대를 따르기도 하고 또는 그것과 상관도 없는 듯한 한토막 한토막의 서술로 된 글들이 우정과 사랑등에 대한 의미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3, 4, 5장에 사교계가 등장한다. 물론 그것은 파리의 사교계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의 활동무대였던 파리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볼 수 있기에 매우 흥미롭다. 그는 물리적인 면에서 파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1803년까지도 들레에 산이 없는 파리가 그 예전 끔찍하기까지 했다. 그의 고향 도피네 지방의 산들은 16년동안 스탕달의 어린시절 그의 열정적인 심장의 고동이 맥박치는 요람터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체질을 주고 말았던 것 같다<sup>13)</sup>

그러나 『에고티슴 회상기』를 쓰고 있던 1830년의 파리는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1821년부터의 그의 파리생활이 있고 난 다음의 그의 관점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ujourd'hui, j'estime Paris. J'avoue que pour le courage il doit être placé au premier rang, comme pour la cuisine, comme pour l'esprit. Mais il ne m'en séduit pas davantage pour cela. Il me semble qu'il y a toujours de la comédie dans sa vertu.*<sup>14)</sup>

오늘날엔, 나는 파리를 크게 평가한다 용기라는 면에서 요리나 재치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파리는 제일의 위치에 놓여야만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파리에 더 이끌리는 것은 아니다. 파리의 미덕에는 늘 연극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스탕달이 묘사하는 사교계는 1821년의 파리, 왕정복고 시대의 그것이었으며, 1831년엔 전해의 7월 혁명시에 7월 왕정이 성립됨에 따라 사라진 시대의 사교계이기도 하다. 왕정복고 시대는 프랑스 역사상 특이한 시대이다. 1789년의 대혁명으로 인해 망명을 했던 귀

12) "Je quittais, après trois ans d'intimité, une femme que j'adorais, qui m'aimait et qui ne s'est jamais donnée à moi". S.E. p. 432.

13) S.E. p. 451.

14) S.E. p. 451.

족들이 돌아와 혁명 이전의 특권을 회복하고 그때의 습관 및 편견을 되찾고자 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급진왕당파가 잡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선 떨어져 있어 부르조아 자유주의자들이 큰 세력을 이루진 못했지만 엄연히 존재해 있었다. 따라서 두 계층의 사람들이 묘한 공존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평자에 따라선 프랑스 19세기 속의 특이한 시대로 소개하고 있다.

스탕달의 『적과 흑』은 바로 이 시대의 연대기로 되어있고 발작 Balzac 또한 이 시대의 귀족 또는 이 시대에 나타난 전 세기의 유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어떻든 당시 크게 보아 그 두 계층은 두개의 사교계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하나는 급진 왕당파인 망명귀족들이 생-제르맹의 거대한 저택에 자리를 잡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우아하지만 방종한 분위기는 유난스러웠고, 국왕이 선포했던 헌장 la Charte 같은 것을 폐기하고 혁명 이전의 화려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귀족의 생각은 매우 반동적인 것이었다.

귀족들의 사교계에서는, 공작들이 오페라의 어린 무용수들을 거리낌 없이 노리개로 삼았다. 한편 그곳에선 공작부인네가 젊은 미남자들을 자기 애인으로 삼고서, 그들에게 좋은 직책을 마련해 주는 것을 크게 감추려 하지 않았던 세계이기도 했으나 모순되게도 예의 바른 것을 크게 강조하는 사회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전개되는 화제의 대부분은 상류 계층의 사랑이야기나 결혼이야기 같은 것이었다. 물론 문예에 관한 이야기 또는 철학사상 또는 신비사상같은 것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어지곤 했으나, 그것은 사교적 흥을 돋구는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사교계는 나폴레옹의 그것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젠 나폴레옹과 더불어 득세한 군인들이 판을 치는 살롱들이 아니었고 새롭게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부르조와들이 주를 이루는 모임들이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소개한 귀족들의 살롱들과는 그 분위기가 다른 곳이었다. 1830년 7월 혁명 이후 지배계급으로 등장하기 전의 부르조와들이라 아직 권력을 장악한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살롱은 순수성을 지닌 자유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1820년대의 문학적 또는 철학적인 경향과 그 정치적인 색깔도 잘 보여주는 곳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화가와 저널리스트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곳에는 망명귀족들의 모임들에서 볼 수 있었던 도덕적인 결함이나 방종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후에 권력에 맞들인 부르조와들의 입으로만 도덕을 내세우고 염치없이 대세에 추종하고 순응하는 위선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살롱들도 그 나름대로 서로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었다. 스탕달이 출입한 곳은 물론 그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모이는 살롱들이었다.

그 곳에는 문인들이 많이 모여 문학을 화제로 삼고 흥금을 트고 대담스런 자신의 소견



을 말할 수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스탕달이 그의 재치를 위협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곳도 있었으며, 그가 불편함을 느끼는 살롱도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그가 지니고 있었던 재담도 별로 반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에고티슴 회상기』에서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살롱은 자유주의자의 살롱이라고는 해도 귀족적인 분위기가 스며있는 몇몇의 살롱이다. 특히 드 트라시 M. de Tracy 씨의 살롱이다. 그 곳에서 묘사되는 드 라 파이에트 장군의 모습이 그의 독특한 필치로 그려지고 있어 독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M. de la Fayette, dans cet âge tendre de soixante-quinze ans, a le même défaut que moi. Il se passionne pour une jeune Portugaise de dix-huit ans qui arrive dans le salon de M. de Tracy, où elle est l'amie de ses petites-filles, (...); il se figure, pour cette jeune Portugaise et pour autre jeune femme, il se figure qu'elle le distingue, il ne songe qu'à elle et, ce qu'il y a de plaisant, c'est que souvent il a raison de se figurer. Sa gloire européenne, l'élégance foncière de ses discours, malgré leur apparente simplicité, ses yeux qui s'animent dès qu'ils se trouvent à un pied d'une jolie poitrine, tout concourt à lui faire passer gaiement ses dernières années.(...)<sup>15)</sup>

드 라 파이에트씨는 일흔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나와 똑같은 걸음을 지니고 있다 드 트라시씨의 살롱에 오는 열여덟 살인 포르투갈 아가씨에게 홀딱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 아가씨는 그 곳에서 드 라 파이에트씨의 손녀들과 벗하고 있는 처지이다 (...) 이 포르투갈의 아가씨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다른 어떤 젊은 여성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상대가 자신에게 호감 있는 눈길을 주고 있다고 드 라 파이에트씨는 여기고 그 여자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재미 있는 점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흔히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유럽에 걸친 명성,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나 타고난 기품이 있는 그의 이야기, 아름다운 가슴을 지닌 여자가 가까이 오면 즉시로 생기를 띠고 빛을 내는 그의 눈초리 등 그 모든 것 덕분에 그의 만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정중한 드 라 파이에트 장군, 그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만난 사람의 이름을 잘 외워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현실적인 사람이고 절실한 이해문제를 갖고 있는 당파의 우두머리인 그는 문학적인 생각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스탕달이 보기엔 그러한 생각을 장군이 가질 능력도 없다고 보고 있다 <sup>16)</sup>

그와 같은 인물 묘사는 여러 사람에게 걸쳐 3, 4, 5장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묘사의 특수함은 세세하게 그리는 방법이 아니라 그 개개의 인물들이 지니는 특징을 잡아내어 이야기하므로써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유발시키는데에 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그것은 필립 드 세귀르 Philippe de Ségur 장군에 대한 묘사로서 스탕달의 면모를 아주

15) S.E. p. 456.

16) S.E. p. 457.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J'avais diné quelquefois avec ce général Philippe de Ségur à la table de service de l'Empereur. Alors le Philippe ne parlait que de ses treize blessures, car l'animal est brave.*<sup>17)</sup>

나는 때때로 황제측근의 식탁에서 필립 세귀르 장군과 함께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그럴 때 그 필립은 자신이 입은 열 세 군데의 부상만을 늘 이야기할 뿐이었다. 하여튼 동물은 용감하니까.

물론 그 드 세귀르 장군을 스탕달은, 일시적인 파오로, 또는 배가 고파서 저지른 죄로 징역을 사는 도형수나 살인범보다도 더 혐오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외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가 지닌 특수한 묘사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여러 인물들을 둘러보는 형식으로 등장시키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소개 또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그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드 트라시씨 M. de Tracy의 살롱분위기와 스탕달의 관계를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드 트라시씨의 살롱은 그의 파리생활에서 그가 자주 왕래하던 곳이다. 그것은 마담 카바니스 Mme Cabanis의 살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스탕달은 그 곳에 드나들게 된 것을 즐거워했으나 마음은 그리 편안치 않았던 것 같다. 그것은 그의 역설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인해, 그가 입을 열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사정을,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간간이 드러내주고 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은 받아들여졌으나,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눈초리를 지닌 그의 냉소적인 입에서 나오는 표현은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았다.

*La simplicité énérgique qu'il me semble que j'avais dans ce temps-là ne dut guère lui convenir. J'avais d'énormes favoris noirs dont Mme Doligny ne me fit honte qu'un an plus tard. Cette tête de boucher italien ne parut pas trop convenir à l'ancien colonel du règne de Louis XVI.*<sup>18)</sup>

그당시 내가 지녔던 것은 단호한 솔직함이었던 모양인데, 그것은 그 사람(드 트라시)의 마음에 도저히 들 수가 없었다. 나는 겹고 무성한 구렛나루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일년이 지나서야 그것에 대해 도리니 부인에게서 핀잔을 들은 것이다. 정말 이 이태리인 푸쭈간 주인의 얼굴 모습은, 루이 16세시대의 퇴역 대령의 마음에 크게 드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태리인 푸쭈간 주인이란 스탕달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위의 글을 보면, 타인에 대한 관찰이 예리하고 때로는 가차없다고 느끼게 하는 스탕달이, 자신을 표현하는데도 너그러움이 없고 심지어는 냉소적이기까지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묘사에 대해 추호의 배려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그가 자주 만나던 뤼생쥬 Lussing 남작과 성실하고, 분별있는, 어린시절부터 같

17) S.E. p. 449

18) S.E. p. 453

이 지낸 콜롱 Colomb 같은 친구들이 인간의 마음에 관한 이론이라던가 문학이나 음악에 의한 마음의 묘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개탄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화제에 관해서 끝없는 논의를 하고, 각기 새롭고 증거가 확실한 이야기로부터 결론을 끄집어 내고 하는 것이 스탕달에게는 크나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스탕달이 훨씬 후에 안 일이지만 그가 존경하던 메리메도 그와 같은 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쓰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제6장부터, 무엇인가 바뀌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자면 스탕달의 영국여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파리 사교계나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탕달 자신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바로 이 장에, 그는 자신의 묘지의 대리석 위에 적어놓을 글씨에 대해, 별도로 그림까지 덧붙여서 적고 있다. 그것은 《*Errico Beyle*,<sup>20)</sup> 밀라노 사람, 살고, 쓰고 사랑하다 그가 열렬히 사랑한 것은 치마로자, 모차르트, 셰익스피어, 18..년 일

일에 죽다》라고 썼으며 트럼프 카드모습을 띤 석판 묘석이 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영국여행 이야기는 좀 더 마음의 여유가 보이며 자신의 행복한 시간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묘석에 관한 말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스탕달은 과거에 자살에 대해 어느 영국친구와 논하면서, 고기잡이 배를 타고 바다로 노니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자살을 하려면, 거친 날씨에 실수로 바다에 빠져버린다는 말을 했다면서 바다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연유로 영국으로의 바다 여행을 꿈꾸었는데, 그의 목적은 셰익스피어 연극이 상연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그는 파리에서 우울을 느끼고 특히 그곳 생활과 자신에게 염증을 갖게 되어 런던으로 가서 그에 대해 치유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1821년 런던에 가서 유명한 배우 킨 Kean이 공연하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묘석 이야기는 과거회상의 연상 속에 흔히 뒤섞일 수 있는 현상으로서 볼 수도 있으며, 행복한 시절을 돌이켜 볼 때는 그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떠오르는 것이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그 곳 사교계에서 그의 작품에 대해 찬사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도 했으나, 재미 있는 반응을 안 보였기 때문에 서투르고 거만스럽게 비쳤으리라고 쓰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본성과는 늘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은 자신의 작품들이 복권표라고 늘 생각했고, 글을 쓰는 당시도 그렇다고 생각했으며, 1900년에 가서야 자기 작품이 재판되어 다시 나오리라고 믿었던 것이다.<sup>21)</sup>

19) S.E. p. 468

20) *Errico Beyle, Henry Beyle*를 이태리어로 쓴 것은, 그 이태리 밀라노에서, 가장 큰 즐거움과 슬픔을 맛본 곳이어서 그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죽고 싶다는 그의 희망의 표시이기도 하다

21) “Je suis accoutumé à paraître le contraire de ce que je suis. Je regarde et j’ai toujours regardé mes ouvrages comme des billets à la loterie.” S.E. p. 474.

그런 한편 영국인 일반에 대한 그의 관찰은 매우 흥미롭다. 영국사람들은 둔감하고 야만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정직한 영국인들은, 한 순간이라도 일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굶어죽는다는 위협의 심연에 끊임없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자기네가 자행한 일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라파엘에 관한 생각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스탕달은 생각하고 있다.

스탕달은 영국 사람과 그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 사람을 아주 흥미있는 관점으로 비교하고, 그 두 국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적절하게 대비시켜 설명하면서 양국민의 독특한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관을 또한 엿보이게 한다.

Barot qui fait les choses avec règle et raison, comme un négociant, nous engagea à prendre un valet de place. C'était un petit fat anglais. Je les méprise plus que les autres; le mode chez eux n'est pas un plaisir, mais un devoir sérieux, auquel il ne faut pas manquer. J'avais du bon sens pour tout ce qui n'avait pas rapport à certains souvenirs; je sentis sur-le-champ le ridicule des dix-huit heures de travail de l'ouvrier anglais. Le pauvre Italien tout déguenillé est bien plus près du bonheur. Il a le temps de faire l'amour, il se livre quatre-vingts ou cent jours par an à une religion d'autant plus amusante qu'elle lui fait un peu peur, etc., etc.<sup>22)</sup>

바로는 장사꾼처럼, 일들을 규칙있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안내인을 하거나 고용하도록 종용했다. 온 사람은 잘난체하는 시시한 영국인이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경멸하는 유형의 인간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 유행은 즐거움이 아니라, 저버려서는 안되는 의무인 것이다. 나는 어떤 종류의 추억에 관계가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선 늘 양식을 지니고 있었다. 영국 노동자의 열 여덟 시간 노동이라는 것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이내 나는 느꼈다. 그렇다면 온통 누더기를 입은 불쌍한 이태리인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까운 것이다. 이태리인은 여자와 육체관계를 가질 틈이 있으며, 일년 중 80일이나 100일은 신앙에 몸을 맡기는데, 그 신앙은 그에게 다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니까 더욱 재미있는 신앙으로, 등등.

영국에의 여행은, 위에서 보아왔듯이 파리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여행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마저 가질 정도로 자신의 결점이 많다고 여기던 터에 실행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6장의 영국여행에서 우리는 영국의 풍경에 대한 묘사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볼 수 없다. 스탕달은 낭만주의의 큰 과제인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는 묘사 *description*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묘사 자체는 과장된 미사여구를 쓸 위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탕달은 그것을 피했던 것이다.<sup>23)</sup>

그리하여 낭만주의자에게 흔히 붙여다니는, '풍경은 기분이다 *Le paysage est un état d'âme*'에 걸맞는 장황한 풍경묘사는 볼 수 없고 그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과장없는 서술

22) S.E. p. 482

23) cf. B. Didier, *Stendhal autobiographe*, p. 257.

을 우리는 대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인 글쓰기라 하더라도, 그 글 속에는 글쓴이의 입장과 선택이 두드러져, 깊게 살펴보면 글쓴 사람의 철학이 엿보인다고 해도 지나친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파리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 보고싶던 연극을 훌륭한 배우가 하는 것을 관람하며, 여러 종류의 여인들과 만나보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도, 그의 관찰력은 무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한다. 다음과 같은 밤의 여인들 집에 갔었던 경험의 서술은 그의 필치의 독특함을 너무나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Les meubles étaient de la petitesse la plus ridicule. Barot est gros et grand, moi gros; nous ne trouvions pas à nous asseoir, exactement parlant, les meubles avaient l'air faits pour les poupées. Nous avons peur de les écraser. Nos petites filles virent notre embarras; le leur s'accrut. Nous ne savions que dire absolument. Heureusement Barot eut l'idée de parler du jardin.*

《Oh! nous avons un jardin》, dirent-elles, avec non pas de l'orgueil, mais enfin un peu de joie d'avoir quelque objet de luxe à montrer.

Nous descendîmes au jardin avec des chandelles pour le voir; il avait vingt-cinq pieds de long et dix de large. Barot et moi partîmes d'un éclat de rire.<sup>24)</sup>

방의 가구들은 아주 우수꽝스럽게 작은 것이었다. 바로는 뚱뚱하고 키가 컸고 나는 뚱뚱했다. 정확히 말해서 어디에다 엉덩이를 붙여야 될지 몰랐으며, 가구들은 인형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앉았다가는 그것들을 으스러뜨릴까 걱정이 되었다. 여자들은 우리들이 당혹해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은 더 당혹해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다행히도 바로가 정원에 관해 이야기 할 생각을 해냈다.

《오 그래요, 우린 정원이 있어요》 하며, 자랑스럽게는 아니지만, 어땠든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사치품을 갖고 있다는 즐거움을 좀 띠고서, 그 여자들은 말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려고 촛대를 손에 들고 정원으로 내려갔다. 정원 길이가 8미터, 폭이 3미터 되는 것이었다. 바로와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위에 인용한 글을 보면, 가구나 방의 좁은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한 대목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 우리는 그 여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협소하다 것을 곧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이 제6장의 경우에 한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앞의 장들에서 나오는 살롱들의 모습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스탕달의 새로운 글쓰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스탕달은 세목에 따른 묘사를 피하면서 독특한 방법으로 특징을 잡아내어 장소와 상황을 독자의 눈 앞에 전개하는 한편 우리가 여지껏 보아왔지만 그만이 갖는 인물의 묘사를 통하여 그 대상은 물론 자기 자신도 드러내 주고 있다. 특히 제7장에 나오는 프랑스인들

24) S.E. p. 484.

의 음악에 대한 몰취미에 관한 비판은 스탕달 자신의 음악애호가의 면모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제8장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뻔뻔스러움을 개탄하면서, 여든 살 내지 아흔 살의 자신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빵잎을 잔뜩 먹은 누에가 더이상 먹을 생각을 않고, 기어오르고 누에고치의 감옥을 만들듯이, 쓴다는, 깊이 빠지는 일을 맞본 작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차적인 즐거움에 불과하다고 제9장에서 쓰고 있는데, 이는 글쓰기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쓴 『앙리 브뤼클라르의 생애』에서 밝혔듯이 잘못 묘사한다는 아쉬움, 아름다운 추억을 망친다는 아쉬움이 그를 늘 자제하게 했다 어쩔든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앞으로는 억제와 무엇인가 써야만 한다는 모순되는 욕구에서 벗어 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자서전은 어차피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스탕달은 나 자신 moi의 나열 대신 우리가 관찰해 왔듯이 과거의 회상을 자기가 상대했던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므로써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는 셈이다 그 이야기 속에는 유머, 풍자 등이 있어 내용에 생기와 특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물론 자신의 산 현실을 다시 재생시키는 일은 소설로 꾸미는 현실보다 더 어려운 글쓰기일런지도 모른다

디디에 B. Didier가 지적했듯이 스탕달은 불행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글쓰기를 통해 그것을 행복한 사랑으로 바꾸며, 또한 그 불행을 이겨내<sup>25)</sup>고 있다는 면에서 그의 글쓰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스탕달은 비록 『에고티슴 회상기』가 중단되긴 해도 제11장에 나온 외삼촌 가봉 Gagnon에 대한 소개와 그의 스탕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책의 중요한 골자가 될 것이다.

《Mon ami, me dit-il, tu te crois une bonne tête, tu es rempli d'un orgueil insurpportable à cause de tes succès dans les écoles de mathématiques, mais tout cela n'est rien. On n'avance dans le monde que par les femmes. Or tu es laid, mais on ne te reprochera jamais ta laideur parce que tu as de la physionomie.(...)》<sup>26)</sup>

《이 애야, 너는 머리가 좋다고 믿고 있고, 학교에선 수학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역겨울 정도로 자만심에 차 있는데, 그 모든게 아무 소용 없어 출세를 하는 것은 여자에 의한 것이다 현대 넌 못생겼어. 그러나 넌 얼굴에 개성적인 표정이 있기 때문에 네 못 생긴 것을 타 할 사람은 결코 없을거야.(·)》라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이 책은 스탕달 자신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스탕달이라는 인간의 성공담이기 보다는 실패담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그가 품었던 공화주의 사상

25) “Raconter une passion malheureuse, c'est d'une certaine façon la rendre heureuse, triompher de son malheur par l'écriture”. B. Didier, 앞의 책, p. 24

26) S.E. p. 519.

과는 거리가 먼 왕정복고시대였으며, 또한 그 글을 쓴 시기는 비록 그 정부에 녹을 먹고 있었으나 신념을 갖고 동조할 수 없었던 7월 왕정이다.

그러나 스탕달은 그 답답한 시대가 주는 권태와 시름을 행복의 거름으로 삼고, 사랑의 고배를 숭고한 사랑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자서전이란 새로운 글쓰기로 감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미사여구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고 매우 냉정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남겨 놓으려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드러지게 그의 모습을 이 책에서 드러내주고 있다. 1833년에 조르주 상드 George Sand는 스탕달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다.

《Gras et d'une physionomie très fine pour le masque empâté... Beyle restait satirique et railleur... Il posait surtout le dédain de toute vanité et cherchait à découvrir dans chaque interlocuteur quelque prétention à rabattre... Je ne crois pas qu'il fût méchant: il se donnait trop de peine pour le paraître.》<sup>27)</sup>

《뚱뚱한 몸, 살진 용모에 비해 너무 섬세한, 얼굴의 개성적인 표정... 벨르는 풍자적이고 빈정거리는 사람이었다 ... 그는 특히 허영심엔 모두 경멸을 나타내었고, 이야기 상대자들에게서 무엇인가 끌어내려야 할 자만심을 찾으려 애를 썼다... 나는 그가 악의에 찬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악의에 찬 사람처럼 보이려고 너무나 지나치게 애를 썼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탕달의 겉으로 내세운 자기와 실제의 모습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에고티슴 회상기』 또한 그 내용을 깊이 파헤쳐 보면 자신의 주장과 내용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스탕달의 다른 소설작품과 함께 자신의 문학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문학작품으로 이해되어야 할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7) Claude Roy, 앞의 책 p.12에서 재인용.

## Bibliographie

Stendhal, *Œuvres intimes*, textes établis et annotés par Henri Martineau,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55.

———, *Œuvres intimes II*, Edition établie par V. Del Litto,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82.

Didier, Béatrice, *Stendhal autobiograph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3.

Guérin, Michel, *La Politique de Stendhal*, P.U.F., 1982.

Roy, Claude, *Stendhal par lui-même*, Editions du Seuil, 1962.

*Stendhal et les problèmes de l'autobiographie*, Textes recueilles par Victor Del Litto,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1976.

### 〈Résumé〉

## L'Étude sur les *Souvenirs d'Egotisme*

WON Yoon-Soo

La présente étude a pour but de mettre à jour des éléments nouveaux de l'autobiographie de Stendhal, *Souvenirs d'Egotisme* en tenant compte de son idée du bonheur et de ses oeuvres romanesques. Nous avons d'abord essayé d'y suivre de près les traces de sa vie entre 1821-1830 en observant ses propres descriptions de lui-même, des mondes parisiens et des gens qui les fréquentent.

L'auteur, comme beaucoup de ceux qui entreprennent de faire leur autobiographie, espère bien se raconter, pour cela il faudrait bien se connaître. Mais «connaître le moi», constante quête chez Stendhal, c'est la chose la plus difficile du monde, sinon impossible. Ecrire son autobiographie est un moyen de faire progresser cette connaissance, comme B. Didier l'a très bien remarqué dans son étude sur Stendhal. Seule, une parfaite sincérité peut lui permettre d'atteindre la connaissance de lui-même.

Cette entreprise est finalement la récupération de soi par l'écriture. Tantôt il écrit avec



conviction ce qu'il pense, tantôt il décrit des événements qui sont arrivés. Et puis souvent, il parle de lui-même indirectement, c'est-à-dire il se dévoile lui-même en écrivant sur les autres, ceux qui se trouvent autour de lui. Mais naturellement, le héros du récit c'est toujours lui, Stendhal. L'écriture des *Souvenirs d'Egotisme* n'est pas un geste isolé, celui d'un homme qui se raconte, mais elle est aussi le fruit des éléments imaginaires, travail de la création romanesque.

Bien qu'il ait commencé à écrire cette oeuvre, en profitant du temps à la fois libre et ennuyeux à l'étranger pour satisfaire son désir d'écrire sur lui-même, pour nous, elle n'est pas seulement un simple résumé d'une époque de sa vie, mais aussi une oeuvre littéraire très importante qui fait partie à part entière du monde littéraire stendhalien.